이제부터는 최고로만 살자

(사사기 18장 1~31)

7.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8.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9.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10.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제부터는 최고로만 살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이제부터는 최고로만 살자'
인생을 최고로만 산다고 할 때에는 최고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뜻 'KS'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옛날에 고등학교가 평준화되기 전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입학하여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라든지, 고건 전 총리, 손학규 씨 같은 분들이 엘리트코스를 나온 분들입니다. 이 KS라인을 인생의 코스로 밟아온 사람들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둘째 형님이 저보다 두 살 위인데 중고등학교 때에 형들의 동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서울대를 나온 친구들은 있지만, 형들의 친구 중에서 죽마고우였던 한 사람은 경복고를 다녔고, 한 사람은 경기고를 다녔습니다. 경복고를 다닌 사람은 서울대 사회계열을 들어갔고, 경기고를 다닌 사람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경기고를 들어간 분과 형이 대화를 할 때에 제가 같이 있었는데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성문종합영어, 영어의 왕도, 1200제, 삼위일체 등의 교재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이야기가 '나는 삼위일체를 세 번 봤다'라든지 '성문종합영어를 세 번 봤더니 영어가 뚫리더라.'라는 말들을 하고, 어느 책을 몇 번 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의 주된 화제였는데, 그때

경기고를 다니던 형의 친구가 했던 말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합니다.
영어 공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형의 친구가 '성문종합영어가 뭐지? 영어의 왕도가 뭐야? 1200제가 뭐야? 나는 그냥 교과서하고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만 하는데'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프린트만 하면 조각조각으로 나눠져서 영어공부 전체의 체계가 생기질 않잖아?'라는 질문에 '영어공부 체계 같은 것은 모르고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프린트만 가지고 하거든'이라고 대답했는데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때에 경기고는 600~7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그 동네 형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로 공부를 한다는 것인데 인생이 이렇게 쉬울 수 있습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은 무슨 책을 몇 번 읽겠다면서 낑낑대고 있는데 경기고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최고로만 살 수는 없을까요? 최고인 경기고를 나와서 최고인 서울대를 가는데, 영어공부 하는 것을 보면 참 쉽게도 공부해서 대충 묻어가듯이 서울대를 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를 쓰고 죽겠다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차이 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경기고 학생으로 서울대를 들어가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최고에서 최고로 이어지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선민이 '최고로 산다.'는 것은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만족하는 삶일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지만 세상에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최고가 되었을 때에 최고로 기쁘지 않다면 최고가 아닐 것입니다. 내용적인 최고의 삶은 최고로 만족하고 최고로 기뻐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한 번 봅니다.
'선민이 되었다'는 것은 일단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습니다. 경기고를 다니면서 서울대를 들어가는 삶만 살면 됩니다. 선민이 된 것은 이미 최고가 된 것입니다. 선민은 하나님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빈틈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준비된 상태에서 사람은 태어나게 됩니다.
최고의 삶은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기쁨의 삶인데 이것이 주어지려면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하루하루가 이루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선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기준에서부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기준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들은 세상이 정한 가치를 많이 획득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겠지만 정말 최고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은 최고로 기쁘냐는 것입니다. 선민은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이 이루어지면 최고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와 관계된 생활 영역 전체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문종합영어나 영어의 왕도나 1200제 같은 어려운 책들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인생이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삶은 다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계획과 내용은 다 프린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프린트되어진 것만 받으면 됩니다. 내 하루의 계획이 프린트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기고 학생으로 서울대 의대생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계획들은 운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최고의 삶이되기 위해 모든 계획과 뜻이 정해져 있지만 문제는 내 인격이 그 계획과 뜻을 세우신 하나님을 좋아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가서 닿을 때에 그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연쇄적으로 이루어져가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하나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을 갖고 있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매일 죽으면 매일 경기고에서 서울대를 들어가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뜻이나 계획을 찾는데 왜 그것들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져야만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져야 실천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만 하나님을 가져야만 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갖지 않고 벌 받지 않고 복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지켜지지 않습니다. 복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가져야 말씀이 지켜지고, 말씀이 지켜져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지 마시든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가져서 내 마음과 하나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은혜와 뜻과 말씀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마세요. 괜히 성문종합영어나 영어의 왕도나 1200제 같은 어려운 책을 몇 번이나 읽어서 성공하겠다는 비전이나 꿈을 갖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꿈과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 대신 하나님을 갖는 사람이고 그래서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 갖고 계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시면 최고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 지파가 땅을 찾아 나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사사 얘기가 나오다가 뒤늦게 또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 지파는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때에 제비뽑기로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그 할당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제비뽑기로 할당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할당 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지에 갇혀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단 지파의 지역까지 쳐들어와서 자꾸 괴롭히므로 북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주할 땅을 정탐하고 정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 땅이 라이스이었습니다. 라이스는 시돈의 지배하

에 있었는데 레바논 산맥으로 막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돈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던 곳이었고, 헬몬 산에 가려서 암몬으로부터도 보호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사람들은 외침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단강의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풍성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이 땅을 단 지파가 정복하여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라이스를 정복한 뒤에는 단으로 이름을 고칩니다. 이 라이스 정복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 지파 사람들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복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은 땅을 쳐부수고 정복하는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만 실천하면 되는데, 성문종합영어도 하고 영어의 왕도도 하겠다고 다른 곳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은총에 근거된 계획들을 다 버리고, 내가 내 삶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쟁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내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얻기 위해 계획하고 실천하는 삶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고 멋지고 그래야 될 것만 같은 삶처럼 보입니다. 필요를 느껴서 쟁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저주스러운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의 땅 에덴이 있었는데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자기가 기쁨을 추구하며 삽니다. 단 지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지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저주의 삶의 특징입니다. 선민의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프린트해두셨습니다. 다른 책을 볼 필요가 없고 다른 프로젝트나 다른 비전 다른 꿈을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프린트해두신 계획만 받아서 하면 최고가 되고, 그것이 경기고에서 서울대를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지파를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땅을 정탐하고 정복하려는 과정 속에서 단 지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이 살 땅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앞서 나온 미가와 마찬가지입니다. 미가가 마음에는 돈을 담고서 하나님을 찾았듯이 단 지파는 마음에 땅을 담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갖지 않고 땅을 가지면 내가 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유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갖지 않고 돈을 가지면 내가 내 손으로 벌고 써야 될 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 것을 가지면 그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상실되고 맙니다. 단 지파가 마음에 땅을 들여놓지 않고 하나님을 모셔 들였다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할당 받았던 땅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며

살다가 아모리 족속의 괴롭힘과 블레셋의 괴롭힘이 괴로워서 울부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이 안 되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일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일을 내 마음이 갖고 있고 신경 쓰면서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 일은 죽어서 없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목회가 안 돼서 엄청나게 신경이 쓰일 때, 해결하는 방법은 내 마음에서 목회를 죽이는 것이고, 목회를 갖고 있는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회에 대한 계획이 펼쳐지면서, 경기고에서 서울대를 들어가는 것처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목회 일정은 하나님께서 프린트하신 대로의 내용으로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셔 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은혜도 받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은 단 지파가 잘한 것 같이 보입니다. 라이스 땅은 땅과 물이 넉넉하고 그곳의 사람들은 외침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육백 명만 보내고도 차지할 수 있었고 새 땅을 정탐해서 개척했으니 잘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복지의 경계 바깥으로 뛰쳐나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땅입니다. 우리 생각에 전화위복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역사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북 왕국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려고 두 군데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는데 한 곳은 벧엘이었고 한 곳은 오늘 단 지파가 정복한 라이스입니다. 그렇게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성경을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역대상에 나오는 선민의 족보에서 단 지파의 이름이 빠졌고, 계시록 7장에도 지파별로 사람 수가 나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십사만사천명 중에서도 단 지파의 이름은 빠집니다. 선민의 생명록으로부터 단 지파는 지워졌습니다.
단 지파는 잘 산 것 같이 보입니다. 땅이 부족하니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죽이고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까지의 모든 가나안 정복전쟁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보다 약한 사람들과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도 아낙 자손도 전부 강한 자들이고 국가 체제를 완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없었습니다. 이 단 지파의 싸움은 성경 속에서 처음으로 선민이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정복하고 죽인 전쟁입니다. 세상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 방식입니다. 선민으로서는 도저히 보여서는 안 될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삶의 방식을 채택한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부분을 더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마음에 좋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땅과 관계된 계획, 돈과 관계된 계획, 건강과 관계된 계획, 자녀와 관계된 계획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내가 느껴서 계획을 세워 정복하겠다는 삶은 선민에게서는 보여서는 안 될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문종합영어를 하겠다는 것처럼 대단한 프로젝트를 세우고 실천하고 성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어의 왕도나 1200제 같은 굉장한 과제를 수행함으로 내 인생을 최고로 이끌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각자에게 주어질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의, 최고의 삶은 다 계획되어 프린트되어있습니다. 단지 내 마음이 세상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좋아할 때에 그 계획들이 줄줄이 시작되고, 경기고에서 서울대를 들어가는 최고의 삶으로 매일 매일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는 것은 단 지파가 땅을 마음에 갖고, 미가가 돈을 마음에 갖는 바람에 하나님을 갖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미가와 같은 마음과 단 지파와 같은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하나님 갖게 되시고 하나님이 프린트해놓으신 모든 최고의 삶에 대한 하루하루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져서 모두가 다 경기고 학생으로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갖는 내가 날마다 시간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을 갖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에덴의 계획들이 날마다 성취되어서 경기고에서 서울대를 가는 최고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